

주얼리에 표현된 오리엔탈리즘

-까르띠에를 중심으로-

Orientalism in Jewelry

-concentrated on Cartier style-

이정은 (Lee, jung eun)

인덕대학교

논문요약

Abstract

I.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II. 오리엔탈리즘

1. 오리엔탈리즘의 개념
2. 오리엔탈리즘의 흐름

III. 주얼리에 표현된 오리엔탈리즘

1. 까르띠에 역사
2. 까르띠에 주얼리에 표현된 오리엔탈리즘
 - 1) 까르띠에의 동양적 색채
 - 2) 디자인 분석
3. 까르띠에 주얼리에 표현된 뉴 오리엔탈리즘
 - 1) 뉴 오리엔탈리즘
 - 2) 디자인 분석
4. 까르띠에 작품들을 통해 본 한국풍 이미지 부각에 대한 제안

IV.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오리엔탈리즘은 오래전부터 서구 문화, 예술의 중요한 경향이였으며 오늘날까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특히 20세기말 산업사회의 확일성에 대한 한계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비롭고 자연 친화적인 오리엔탈리즘이 21세기를 주도할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세기 초부터 동양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까르띠에의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한국풍 주얼리 디자인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0세기 초 까르띠에는 중국적인 모티브를 직접 인용하거나 중국 풍 색상을 활용한 수많은 작품을 선보였다. 뉴 오리엔탈리즘 경향이 반영된 최근 작품들은 중국적 모티브를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현대감각에 맞게 변형하였다. 동양의 전통적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서구적 심미성과의 적절한 결합은 다원주의적, 절충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세계시장에 국내 주얼리를 알리기 위해서는 후자와 같이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 개발이 요구된다.

최근 오리엔탈리즘의 열풍 속에 중국과 일본풍이 세계 디자이너들에게 중요한 발상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마케팅 요소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구인이 아닌 한국 디자이너에 의한 한국풍 주얼리 개발은 신선한 이미지를 부여할 것이며 세계 시장 진출도 가능하리라 본다.

Abstract

Orientalism has been one of the key cyclical trends in the western culture and art for a long time. Interestingly, Orientalism, somewhat mysterious and nature-friendly is re-highlighted as a leading trend for the 21st century because of limitations resulting from uniformity of the late 20th century's industrial society and anxiety over uncertainty of the future.

This thesis focuses on identifying the possibilities of Korean style jewelry design by investigating Orientalism expressed in the works of Cartier that

has been highly interested in the East from the early 20th century.

In the early 20th century, Cartier mainly adopted Chinese motives or colors directly for its works. However, recent works with new Orientalism have been introduced through the recreation of Chinese motives for modernity.

Skillful combination of traditional Eastern factors with Western aesthetic shows the trend of pluralism and eclecticism.

In order for Korean jewelry to have wider publicity in the world market, we have to develop universal designs, appealing to global customers as well as maintaining Korean style.

With the surge of Orientalism, many world famous jewelry designers get the key ideas through Chinese and Japanese motives and leverage them for marketing factors.

At this point of time, the development of Korean style jewelry not by western designers but by Korean designers can create unknown images appealing successfully to world jewelry market.

(Keyword)

Orientalism · Cartier

1. 서론

1. 연구목적

오리엔탈리즘은 오래 전부터 서구 문화, 예술의 중요한 경향이었다. 더 이상 일반인에게 낯선 용어가 아닌 오리엔탈리즘은 오늘날 문화, 예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동양 문화, 동양 사상 뿐 만 아니라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발생한 오리엔탈리즘의 시각 조정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0세기 말 산업 사회의 획일성에 대한 한계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비롭고 자연친화적인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어 퓨전(fusion), 크로스오버(crossover), 하이브리드(hybrid) 등 문화적 다원주의, 절충주의라는 큰 흐름 안에서 21세기 예술의 주된 흐름을 이끌어갈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최근 패션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주얼리 역시 토탈 패션의 일부분으로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WGC(World Gold Council)¹⁾는 골드 익스프레션 2006²⁾을 통해 2006년 디자인을 이끌 트렌드로 자연, 아시아 문화, 색다른 감각을 꼽았다.³⁾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들은 이미 동양적 모티브에서 따온 디자인들을 선보였고 일찍이 중국의 전통과 전설에서 얻은 영감으로 많은 작품을 선보였던 까르띠에는 최근에도 오리엔탈 풍 컬렉션을 선보였다.

세계적인 브랜드들은 대부분 중국과 일본의 전통적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단순한 조형적 사고에 의해 동양적 이미지를 표현한다. 어쩌면 그들이 표현하는 오리엔탈 풍은 단순한 모방에 불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제까지 활용되지 않은 한국적 이미지를 서구인들의 시각에서 표현 된 것이 아닌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한 한국 디자이너에 의해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주얼리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수의 오리엔탈 풍 주얼리를 선보였던 까르띠에 작품을 20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살펴보고 디자

1) 세계 금 협회

2) WGC와 Vicenza Fair사가 이태리의 골드 주얼리 제품에 대한 주요 국제 시장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

3) 귀금속경제신문,2006.03.25

인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주얼리 디자인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들은 패션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는 주얼리에 나타나는 오리엔탈리즘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본 논문의 배경이 되는 오리엔탈리즘의 개념과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 중 오리엔탈리즘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는 「까르띠에」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경향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디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풍 이미지를 부각시킨 주얼리 디자인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와 그 이전의 오리엔탈리즘은 그 특성을 달리하므로 후자를 오리엔탈리즘, 전자를 뉴 오리엔탈리즘이라 칭하고 까르띠에 작품에 표현된 오리엔탈리즘과 뉴 오리엔탈리즘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은 최근 정보와 각종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아트 오브 까르띠에(The Art of Cartier) 해외 전시 관람 및 까르띠에에 서적과

홈페이지를 통한 사진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II. 오리엔탈리즘

1. 오리엔탈리즘의 개념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란 「오리엔트(Orient)」라는 라틴어 오리엔스(Oriens)에서 파생된 단어로 그 자체가 ‘헤뜨는 곳’, ‘일출’, ‘동방’의 의미를 지닌다. 지리적으로는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지중해의 동쪽을 가리켜 불리어왔으나 동방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면서 오리엔트라 말하는 범위는 넓어지게 되어 일반적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북부까지 포함한 동방 세계 전체를 가리켜 부르는 말이 되었다.⁴⁾

이처럼 오리엔탈리즘은 ‘Orient’ 곧 동양에 관계하는 양식으로, 서양 문화 속에서 그들과 전혀 다른 이질적

4) 이영재, 오리엔탈리즘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 석사 학위논문, 1992, p3

인 동양 취미가 등장할 때 불려지는 용어로서 근세 유럽에 있어서 문학, 예술상의 한 풍조로 나타난 낭만주의의 한 경향인 이국취미를 의미한다. 이는 동방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상의 동인(動因) 또는 제재로 한다.⁵⁾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이 용어는 서구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곧 ‘동양학’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서양이 오리엔트, 곧 동양에 반응하는 방식으로서, 서양 또는 서양인이 동양이나 동양문화에 대해서 갖는 태도나 관념, 이미지, 그리고 서양인이 동양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담론이란 뜻을 포괄하고 있다.⁶⁾

그러나 오리엔탈리즘이 지칭하는 또 다른 의미는 동양과 서양이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병렬적이고 상대적 개념보다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동쪽이라는 서구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서구 중심적 사고로 서구는 우수하고 비 서구는 열등하다는 논리의 이데올로기적 시각을 말한다. 이처럼 전통적 개념의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중심적인 사고로 발생한 개념으로, 지배대상인 약자로서의 동양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낭만적인 이상향으로서의 동양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며 오늘날 이러한 양자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오리엔탈리즘은 이후 서양문화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예술분야 전반과 특히 건축, 패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오리엔탈리즘의 흐름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시, 동양의 비단을 처음 접한 이후로⁷⁾ 기원전 2세기경 실크로드를 통한 인도의 보석, 면과 소량의 중국 실크가 전래되었는데⁸⁾ 이를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비잔틴 제국은 동양과의 활발한 무역으로 비잔틴 제국 복식에 고대의 전통적 동방 요소를 가미해 새로운 양식을 만들었고 십자군 전쟁으로 중동의 이슬람 문화, 자수, 아플리케, 진보된 직조 기술, 염료 등이 서양에

5) 동아원색대백과사전, 제21권, 동아출판사, 1993, p286

6) 전진농, 오리엔탈리즘의 두얼굴 : 세속적오리엔탈리즘과 구도적오리엔탈리즘, 동서비교문학저널, 1999, p235

7) 권영필, 실크로드 미술, 열화당, 1997, p14

8)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p89

전래되는 계기가 되었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걸쳐 유럽에서는 상류 계급 사이에 동방 취향이 그 절정에 달해 중국 및 극동풍의 문양, 풍물들을 가구나 도자기, 직물, 의상 등에 등장시켰는데 시노와즈리(chinoiserie, 중국취미), 튀르크리(turquerie, 터키취미)라 불리며 유행하였다.⁹⁾

1851년 런던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는 근대 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유통의 장이 되어 일반인들에게 이국문화의 존재를 널리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1857년 'Liberty house'가 개점하며 일본, 중국, 인도, 페르시아 등지의 동양 상품을 수입하였으며¹⁰⁾ 1855년 일본의 문화 개방으로 인해 일본풍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20세기 이후에도 오리엔탈리즘은 예술사조 전반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었다. 1909년 러시아 발레단의 「셰헤라자데(Scheherazade)」¹¹⁾ 파리공연에서 선보인 Leon Bakst의 동양풍 발레 의상은 예술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22년 투탕카멘의 고분 발견으로 이집트 문양과 장식의 주얼리를 포함한 패션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1931년 파리 식민지 박람회 역시 극동, 아프리카 등의 이국적 민속풍으로 유럽을 열광하게 하였다.¹²⁾ 1925년 「근대 장식 산업 미술 파리 국제전」(Paris Exposition Internationale des Arts Decoratifs et Industriels Modernes) 이후 이름 붙여진 아르데코(Art Deco) 양식 역시 기하학적이고 강렬한 색채 대비를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나, 위에 나열한 러시아 발레단의 파리 공연, 투탕카멘 묘의 발굴, 파리 식민지 박람회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이집트, 인도, 극동 아프리카 등에서 모티브를 구한 이국적 디자인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된다.

1960년대 동방풍의 영향은 미국에서 시작된 히피 저항운동으로 시작되어 1968년 이후 패션계는 동양의 문화와 과거로 관심이 옮겨지게 되었다.¹³⁾

197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 중국의 문화개방 등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¹⁴⁾ 일본의 경제 성

장은 80년대 들어 일본 디자이너들의 일본풍 디자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에는 과학문명의 급진적 발달로 지구환경의 훼손이란 위협 속에 과거로의 회귀, '자연주의'에 대한 관심과 동양의 종교적인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동양의 신비스러움'에 관점을 둔 뉴 오리엔탈리즘(New Orientalism)이 부각되었다. 이전과는 달리 동양미학의 이해가 조금이나마 반영된 뉴 오리엔탈리즘은 다원주의, 절충주의적 경향을 띠며 동·서양의 결합, 전통적 요소와 미래적인 요소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미를 창출하고자한다.

III. 주얼리에 표현된 오리엔탈리즘

주얼리에 있어서 오리엔탈리즘은 복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계 양차대전 사이 입체파와 빈 분리파 등에 영향 받은 기하학적이고 강렬한 색채대비를 추구하는 아르데코 양식이 유행하던 시기에 부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아르데코 양식은 일찍이 1910년경부터 주얼리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양차 세계대전 사이 정점에 도달한다. 까르띠에, 부쉐론(Boucheron), 모부생(Mauboussin), 반 클리프 앤 아펠(Van Cleef & Arpel) 등 라페가(街)와 방돔 광장에 자리한 여러 회사들이 이국적이고 국제적인 접근법을 개척하는데 앞장섰다.¹⁵⁾ 이들 중 특히 까르띠에는 동양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20세기말 뉴 오리엔탈리즘은 예술 전반, 특히 패션계의 큰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주얼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 클리프 앤 아펠은 연꽃을 모티브로 한 반지, 목걸이 등의 '로터스(lotus)' 시리즈와 중국인의 모자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샤포 시누아(Chapeau Chinois)' <그림1> 컬렉션을 선보였고 강렬한 빨간색 광택 가죽 스트랩에 황금색 자수와 금장식으로 연꽃을 표현한 '프리블' 주얼리 라인을 출시했다. 예거 르쿨트르(JLC)는 중국의 산수화에 영감을 받아 만든 '리베르소 플로럴 클라우드' 시계를 선보였다. 104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구름 문양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동양의 미를 표현하려 애썼다. 중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전통을 그대로 표현한 제품들도 있다. 바쉐론 콘스탄

9)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p266

10) Guillemo de Osma, Fortuny:the Life & Work of Mariano Fortuny, NY, Rizzoli, 1994, p92

11) Francois Boucher, 2000 Years of Fashion

12)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1995, p276

13) 간문자, 1960년대 저항패션이 민속풍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30, 1996, p158

14) 주간한국, 2004, 06, 02

15) Clare Phillips, 김숙 옮김, Jewelry (장신구 역사)

(Vaceron Constantin)은 동양의 콜롬버스로 불리는 명나라 항해사 정화(鄭和, 1371-1434)¹⁶⁾ 이야기를 담은 시계를 선보였다. 문자판에는 그가 항해 당시 이용한

지도가 그려져 있다. 까르띠에 '탱크 디 반라지' 손목시계 <그림2> 는 중국전통기법대로 칠보 에나멜을 사용해 문자판 가득히 용을 새겨 넣었다. 구름 배경 문양이 시계 케이스에까지 이어져 신비로움을 극대화했다.¹⁷⁾ 2002년 '용의 키스'라는 뜻의 '르 베제 디 드라공(le Baiser du Dragon)' 시리즈의 출시는 까르띠에의 동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그림 1>



<그림 2>

1. 까르띠에의 역사

까르띠에의 역사는 1847년 루이 프랑수와 까르띠에(Louis F. Cartier, 1819-1904)가 그의 고용주였던 A.피카르(A.Picard)의 사업을 인수하여 파리의 몽토르게이(Montorgueil) 29번지에 위치한 보석 아틀리에를 경영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소매상이었던 까르띠에 일가의 사업은 1874년 아들 알프레드가 경영권을 인수받으면서 급성장하였다. 1899년에 라페13가(13 Rue de la Paix)로 이전하면서 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변신하여 디자인 스튜디오를 시작하였고 이때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까르띠에는 다시 알프레드의 세 아들에게로 이어 영국, 모나코 등 각국 왕실과 귀족을 고객으로 유치하면서 세계 최고 보석상으로 자리 잡는다. 1900-1939년 사이에 루이 조셉, 피에르 카미유, 자크 테오필, 이들 세 아들은 각각 파리, 뉴욕, 런던 각 지점을 맡아 경영하였다. 각 지점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

지고 있었지만 국제적, 지역적 취향에 맞춰 독립적인 면모를 보였다.

1942년 루이와 자크의 사망으로 까르띠에의 사업권은 전 세계로 나누어진다. 세계적으로 관심을 유지시켜온 이 문화유산은 로버트 호크(Robert Hocq)에 의해 1979년에 이르러서야 인터내셔널적인 까르띠에 몽드(Cartier Monde)로 전 세계에 분할되어있던 사업권이 통합된다. 1993년 10월에 피아제(Piaget)를 포함한 열개의 회사와 손잡고 「방돔 럭셔리 그룹(Vendome Luxury Group)」을 구성한다. 1998년에 모그룹인 방돔(Vendome)이 리치몽트(Richemont)그룹에 인수, 합병되면서 함께 인수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 180개 직영매장과 1만 2000개의 점포를 지니 세계 최고의 디자인·제조업체로 성장하였다.

2. 까르띠에 주얼리에 표현된 오리엔탈리즘

1) 까르띠에의 동양적 색채

알프레드 세 아들 중 가장 뛰어난 사업 감각과 창조력을 지닌 루이는 전통적인 디자인이나, 희귀한 발견물,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의 창조물에 자연스럽게 조화시켜 성공을 거두었고 그 모든 것이 그들 고유의 스타일, 즉 까르띠에 스타일로 연결되어 진다. 까르띠에는 19세기말 아르누보가 유행할 당시 일시적일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¹⁸⁾ '아르데코'라는 명칭이 생기기 훨씬 이전인 1906년경부터 그러한 스타일을 주얼리로 선보이는 창조적 역량을 발휘한다. 세계양차대전 사이에 아르데코 스타일로 전성기를 누리는데, 까르띠에는 이 시기에 동양에서 영감을 얻은 다수의 주얼리, 시계 및 악세사리를 제작한다.

세 형제는 세계 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다. 피에르는 러시아와 미국 등지를 여행하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은 조각품을 찾아냈고 자크는 최고급 진주를 구하기 위해 페르시아로 떠나는데, 그는 인도 마하라자(Maharaja-인도의 왕후를 존칭하는 말)로부터 화려한 색채를 가진 인도 왕실의 보석을 까르띠에 디자인에 접목해달라는 주문을 받는다. 그리하여 인도 무굴 왕조의 주얼리를 모방하여 불규칙하게 연마하거나 골지게 조각한 에메랄드 비드를 목걸이로 선보였다. 에

16) 15세기 초 8천톤 급의 대형 목선으로 인도양을 누빈 전설의 인물이다.

17) 동아일보, 2004.05.20

18) The World of French Jewelry Art-The Art of Cartier, Tokyo Metropolitan Teren Art Museum, Nihon Keizai Shimbun, 1995, p51

메탈드, 사파이어, 루비를 잎새나 꽃 모양으로 조각하여 구성한 브로치나, 인도의 ‘생명수 (Tree of Life)’에서 모티브를 따와 다이아몬드 가지에 이들 보석을 조밀하게 박은 팔찌와 목걸이도 등장했다.¹⁹⁾ 인도문명과 함께 페르시아 문명도 색채가 풍부한 아르테코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에나멜에 있어서 그 장식적, 형상적, 추상적 모티브의 다수는 다양한 주얼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집트 문명은 기하학적 형태를 선호한 1920년대와 부합하여 정밀하게 구성되어진 형태를 실현케 했다. 자크는 특별히 이집트, 페르시아, 러시아와 동양 문명에 관심이 높았다. 러시아의 발레에서 큰 영감을 받은 유럽 예술계의 동양적 열광에 까르띠에는 동참하여 주얼리의 색채와 소재의 혁명을 시작하였다. 루이 까르띠에가 지닌 본능적인 감각에 힘입어 자크는 강한 색채감을 오톨스, 산호와 같은 새로운 재료에 적용, 보다 기하학적인 모양의 보석을 디자인했고, 1925년 이후 계속 진행 중이던 아르테코의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인다.

까르띠에의 아르테코의 원천인 세계에 대한 호기심의 연장으로 1920년부터 주목된 해외 문명은 중국이었다. 다수의 장식 테마는 중국으로부터 직, 간접으로 인용되었고 주얼리 뿐만 아니라 시계, 악세사리에도 그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1920년대 모리스쿠에(Maurice Couet)의 미스터리 시계(mysterious clocks) 제조에서 까르띠에 아르테코가 정점에 달한다. 6개의 현관 모양 시계(six portico clock)와 12개의 중국식 탁상시계는 최고의 명품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이것의 제작을 위해 루이 까르띠에는 18세기, 19세기의 극동 조각을 구입했다. <그림9>, <그림10> 까르띠에는 세련된 현대적 악세사리를 디자인 하면서 향수병들을 디자인 한다. 당시의 유명 인사들이 러시아와 동양으로부터 공급받던 진귀한 향을 담기 위한 향수병들을 제작하게 되는데 역시 중국의 테마가 디자인에 적용된다.

중국에 비해 일본이 까르띠에 디자인에 미친 영향은 보다 간접적인데, 일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작품은 오비를 연상케 하는 ‘일본식 리본 브로치(Japanese bow brooch)’(1907) <그림3>와 신토²⁰⁾ 문을 닮은 디자인의 시계 <그림4> 연작이다.²¹⁾



<그림 3 >



<그림 4 >

2) 디자인 분석

까르띠에의 아르테코의 원천인 ‘동양’ 중 대다수 작품의 소재는 중국이었다. 다수의 장식 테마는 중국으로부터 직, 간접으로 인용되었으나 대부분의 작품들은 직접 인용되었다.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조각을 활용하거나 문양들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였다. 동양 이미지의 보석들 - 자개, 산호, 비취, 옥 등 - 을 주로 사용하였고 동양풍의 색채를 비교적 조화롭게 적용시켰다. 작품들은 한눈에 동양, 특히 중국의 이미지를 차용했음을 알 수 있으나 서구인들의 미감과 교묘하게 어우러져 그들의 쓰임새에 맞게 새롭게 창조되었다.

① 문양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형태는 다양한 중국문양이다. 동물문이나 식물문, 기하문 등이 다양하게 디자인의 테마로 활용되었다.

①-1 동물문

중국의 동물문은 우선 용(龍), 귀(龜), 린(麟), 봉(鳳)의 사령을 들 수 있다. 사령 중 제일로 간주되는 용은 까르띠에 작품에도 가장 많이 활용된다. 화이트 오톨스 케이스에 상아로 된 용문의 파우더 박스(powder box) (1924)와 파우더 콤팩트와 립스틱 홀더(powder compact and lipstick holder)(1925)에 묘사된 용은 검정색의 자연스런 굴곡을 지닌 몸통과 크게 벌린 입, 네 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직접적으로 묘사되었다.

검정색 에나멜로 덮힌 금(yellow gold) 케이스에 자개(mother of pearl)로 용문이 묘사된 파우더 박스(1929) <그림5>의 용은 머리부분이 뚱뚱하고 두눈이 돌출되어 있으며 수염을 날리고 벌린 입 사이로 이가 드러나며 꼬리에 지느러미가 붙어있는 유머스러운 형상을 하

19) Clare Phillips, 앞의 책

20) 일본식 사당

21) The World of French Jewelry Art-The Art of Cartier, 앞의 책, p24-25

고 있다. 주얼리에도 용 문양을 활용하였는데, 드라곤 펜던트 (Dragon Pendant) (1922) <그림6>는 산호에 다이아몬드로 조각된 용 문양을 덧붙였다.



<그림 5>



<그림 6>

두번째로 봉황문이다. 봉황은 실재하지 않는 상상의 새로 길조를 의미한다. 화장품 케이스(Vanity Case)(1925) <그림7>는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 에나멜로 덮인 금 케이스에 캐보션 컷의 사파이어와 에메랄드로 장식된 봉황이 중앙에 위치하고 뒷배경으로 검정 에나멜 바탕에 자개로 된 구름문이 묘사되어 있다. 실제 봉황문보다는 단순하고 도안적 이미지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파우더 콤팩과 립스틱 홀더(1925) <그림8>는 검정색 에나멜 테두리와 자개로 장식된 금 케이스에 아이보리를 배경으로 한 봉황문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림 7>



<그림 8>

세 번째로 키메라(chimera)²²⁾이다. 사령 중 린(麟)은 사슴 형상에 뿔이 하나이고 전신에 물고기 비늘이 덮이고 꼬리는 소와 같은 키메라이다. 비교적 이른 시기

22) 키메라는 원래 하나의 식물체 속에 유전자형이 다른 조직이 서로 접촉하여 존재하는 현상을 말하나 일반적으로 여러 동물이 하나로 합체된 상상의 동물을 의미한다.

에는 사슴의 형태와 비슷하였으나 점차 말의 몸에서 용에 가까워졌다. 19세기 중국에서 조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게이트(agate)로 된 키메라가 주된 형태를 이루는 미스터리 시계<그림9>, 19세기 중국에서 조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호로 된 귀(龜) 키메라가 주된 형태를 이루는 미스터리 시계 <그림10>, 붉은색 산호로 조각된 키메라 모양의 팔찌(1928) <그림11> 등과 같이 중국의 골동 보석을 직접 사용하거나 형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①-2 기하문

동물문 다음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양은 기하문이다. 금과 검정색 에나멜,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는 화장품 케이스(1927) <그림12>는 본래 일만만(萬)자의 상형문자이며 시작과 끝이 없다는 뜻이 들어있어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만자문(卍)이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동양미와 서양미, 고전미와 세련미, 고상함과 화려함이 동시에 느껴진다.

20세기 초 까르띠에는 고품격 향수병들을 주문 제작하게 된다. 동양에서 공급받은 진귀한 향을 담기위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동양적 모티브의 향수병들이 디자인되었다. 비취(jade)로 만들어진 향수병(1925) <그림13>의 중앙에는 장수를 의미하는 길상문이 금 바탕에 에나멜로 표현되어 있고 뚜껑은 중국인들의 모자를 연상시킨다.



<그림 12>



<그림 13>

② 원화

고미술상으로부터 구입한 원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작품들도 접할 수 있다. 중국풍 인물도 2매가 앞, 뒤로 장식된 화장품 케이스(1926)와 중국풍 산수화 2매가 앞, 뒤로 장식된 화장품 케이스(1927) <그림14>는 주재료 역시 자개로, 동양적인 향취가 짙다.

4매의 중국풍 풍경화로 장식된 시계(Repeater

Clock) (1927) <그림15>는 비취, 빨간색 에나멜과 같은 동양적 재료나 색채 뿐 아니라 시계 바늘과 버튼 역시 각각 용 모양과 사자(Buddhist Lion)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

③ 사물

까르띠에는 중국풍 사물을 응용하였다. ‘중국풍 꽃병 (Chinese Vase)’을 주제로 한 브로치들 <그림16>, <그림17>과 화장품 케이스, 중국식 펜던트들, 중국 엽전 모양으로 조각된 비취를 연결한 벨트 등이 그러하다.

3 주얼리에 표현된 뉴 오리엔탈리즘

1) 뉴 오리엔탈리즘

20세기말 과학문명의 급진적 발달로 지구환경의 훼손이란 위협 속에 ‘로하스(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웰빙(well-being)’, ‘자연주의’가 사회 전반에 주요한 화두가 되면서 과거로의 회귀, 동양의 종교적인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고, 그러한 흐름 속에 ‘동양의 신비스러움’에 관점을 둔 뉴 오리엔탈리즘이 부각되었다. 기계화되고 표준화된 삶에 대한 회의와 기존의 스타일에 식상함을 느낀 현대인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였다. 그 결과 정적이면서 자연에 보다 동화되어 있는 동양은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미를 찾고자하는 시도는 현대 디자이너들의 훌륭한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전과는 달리 동양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동양미학의 이해가 조금이나마 반영된 뉴 오리엔탈리즘은 19, 20세기 오리엔탈리즘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현상과 맞물려 다원주의, 절충주의적 경향을 띤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퓨전,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 등의 신조어를 정립시키며 동·서양의 결합,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미를 창출하고자 한다.

모던 오리엔탈리즘(Modern Orientalism)이라고도 불리는 뉴 오리엔탈리즘은 최근 중국 시장의 급격한 팽창과 일본, 한국 등 아시아 럭셔리 시장의 빠른 성장과 영향력에 힘입어 21세기 패션 및 예술 전반의 주된 흐름을 이끌어갈 새로운 조류로 급부상하고 있다.

2) 디자인 분석

까르띠에 주얼리에 표현된 뉴 오리엔탈리즘은 2002년 출시한 ‘용의 키스’라는 뜻의 ‘르 베제 디 드라공’ 컬렉션에서 두드러진다. 중국의 문화와 전통에서 영감을 얻어 까르띠에의 장기인 아르테코 스타일을 접목시킨 컬렉션으로 동양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기존의 것들

과 차별화 된 컬렉션으로 동양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은 익숙함과 낯설음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중국문양이나 중국풍 원화를 사실적으로 표면에 장식하거나 중국의 18, 19세기 조각을 직접 인용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는 20세기 초 작품들과 달리, 뉴 오리엔탈리즘 경향이 반영된 21세기 작품들의 주된 특징은 동·서양의 결합과 중국의 전통적 모티브와 현대적인 감각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미를 추구하는 절충주의와 다원주의적 경향을 띤다.

르 베제 디 드라공 시리즈는 크게 용, 파고다, 패드락, 한자, 이 네 가지를 디자인의 주된 모티프로 활용하였다.

① 용

중국에서 용은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동물로 땅과 바다 그리고 동시에 천상의 존재로서 창조와 탄생을 의미하며 인간에게 유익한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중국의 전통적 소재인 용을 실제 용의 모습과 한자 ‘龍’을 결합하여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변형하였다. 아르데코 스타일의 주얼리로 모던하고 어디에나 어울리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그림18>, <그림19>, <그림20>

② 파고다 (pagoda)

중국의 건축물에서 착안한 디자인이다. <그림21>는 파고다라 칭하는 동양의 사원이나 불탑의 형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한 반지다. 끝부분에 달린 링들은 지붕 끝에 매달린 풍경을 연상시킨다. <그림22>, <그림23> 역시 중국의 파고다 지붕에 걸어 놓던 풍경에서 착안한 펜던트와 브로치이고 <그림24>는 파고다의 아치형 곡선에서 착안한 이어링이다. 이들 역시 까르띠에 아르데코의 중국적 향취를 느낄 수 있는 모던한 감각의 주얼리이다.

③ 패드락 (pad lock)

중국에서 좋은 금슬의 상징인 패드락을 디자인 모티브로 삼았다. 중국적 소재인 패드락을 아르데코 스타일의 기하학적인 미학으로 재해석하였다. 중국의 구전에 따르면, 출생과 결혼 호적을 관리하면서 장차 결혼하게 될 아이들의 이름을 빨간줄로 이어놓는 신선이 달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림28>, <그림29>은 이러한 구

전을 연상시키는 비단매듭을 펜던트에 접목시킨 디자인이다. 소원을 비는 마음으로 행운의 줄 두 개를 맨 후, 루비 구슬을 매달았다.

④ 한자

중국의 한자를 모티브로 반지를 디자인하였다. 중국의 한자를 연상시키는 기하학적 형태의 마운트 안에 보석을 정교하게 삽입하였다. 한자라는 고전적 주제에 아르데코적이면서 미니멀적인 모던함을 잘 조화시킨 시·공간을 초월한 디자인이다. 완벽한 덕의 상징으로 중국 황제들이 지니던 보석 제이드를 메인 보석으로 셋팅하여 그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그림32>

르 베제 디 드라공 시리즈는 형태 뿐 아니라 색상 및 소재도 중국적이다. 대부분 레드, 블랙, 화이트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세 가지 색상은 아르데코 디자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색상이면서 중국의 만물의 조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레드와 성공을 의미함과 동시에 생명을 상징하고, 블랙은 정화와 고결을 의미하는 동시에 땅과 밤을 상징하며, 화이트는 안녕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늘과 낮, 남성을 상징한다. 르 베제 디 드라공 시리즈는 이들 세 가지 색상의 대비효과를 극대화하였다.

4. 까르띠에 작품들을 통해 본 한국풍 이미지 부각에 대한 제안

21세기는 문화경쟁시대로 주얼리 업계에서도 고품격의 창조적 디자인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최근 오리엔탈리즘의 열풍 속에 중국과 일본풍이 세계 디자이너들에게 중요한 발상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마케팅의 요소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한국풍을 활용한 현대적 감각의 주얼리 디자인 개발은 국내 주얼리 업계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여긴다. 따라서 본 논문을 기초로 미력하나마 국내 디자이너들이 모색해야 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까르띠에의 오리엔탈리즘 주얼리들은 3-2, 3에서 살펴 보았듯이 초창기에는 대부분 중국풍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였으나 21세기 새로운 컬렉션에는 간접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세계 시장에 국내 주얼리를 알리기 위해서는 후자와 같은 세계 시장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 개발이 요구된다. 즉 지

나친 전통의 고수 보다는 전통성을 유지하되 서구적인 미감과 적절한 공유가 필요하다.

르 베제 디 드라공 시리즈는 용, 파고다와 같은 가장 중국적인 모티브를 단순화시켜 현대적으로 실용화하고 서양이 공감할 수 있는 동양적 색상을 결합시키는 디자인의 단순한 접근법을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단순한 접근법이 우리가 지향(志向)해야 할 디자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단, 동양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동양의 미를 모방한 서양인들의 디자인을 또 다시 모방하는 오류는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한 방법적인 것은 취하되 우리문화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노력과 우리 안에 내재되어있는 한국 고유의 미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풍 이미지를 부각시킨 주얼리 디자인 개발 방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한국적인 모티브를 선택하고 현대적이고 기능적으로 형태를 변형시킨다. 고정관념은 탈피하고 한국적인 미감 -우아한 곡선미, 화사하면서도 기품 있는 색상미 (르 베제 디 드라공 시리즈에 적용된 레드, 블랙, 화이트만이 동양적인 색상은 아닐 것이다), 여백의 미-은 유지하는 동·서양의 절충주의적 디자인을 개발한다.

100여년의 전통을 지닌 해외 주얼리 브랜드들에 비해 매우 짧은 주얼리 역사를 가진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경제 불황과 맞물려 브랜드를 구축하고 디자인을 개발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디자이너들의 꾸준한 창작 활동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주얼리 업계 및 각계 각층, 나아가 정부의 노력 또한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풍 주얼리도 세계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론

본 연구는 까르띠에 주얼리에 표현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로 이를 통해 한국적 주얼리 디자인의 개발과 세계시장 보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중국을 비롯한 동양 골동품 수집가였던 까르띠에는 20세기 초부터 동양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고 특히 중국 전통에서 영감을 얻어 다수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까르띠에 작품은 크게 오리엔탈리즘 경향이 반영된 20세기 초반 작품들과 뉴 오리엔탈리즘 경향이 반영된 최근 작품들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주로 동물문, 식물문, 기하문 등 문양을 직접 활용하거나 원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며 그 외에 조각된 중국 골동 보석들을 활용하거나 중국풍 사물들을 응용하였다. 이 시기 작품들은 중국적인 모티브를 직접 인용하거나 색감을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후자는 중국의 전통적인 모티브를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변형하여 디자인하였다. 형태, 소재, 색채 면에서 전통적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서구적 심미성과의 적절한 결합은 다원주의적, 절충주의적 성향을 보여준다. 또한 현대 사회에 적합하도록 형태를 실용화하여 보다 보편적인 디자인을 보여준다.

까르띠에 작품에 나타나는 것처럼 국내 주얼리 개발에 있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의 결합, 동·서양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미를 창조하는 것이다.

글로벌시대에 세계인의 주목을 끄는 길은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단, 과거의 것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화시키는 과정을 통한 보다 보편적인 디자인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 전통과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보존, 발전시키는 것이다.

동양적인 것만이 세계인의 주목을 끌 수 있다는 한 일본인의 말처럼 세계적인 것을 창조하는 지름길은 한국적인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오늘날 다원주의는 하나로 편중되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재구성하여 창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져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이 현실이나 최근 중국과 일본풍 일색인 세계시장에 한국적인 차별화된 디자인은 신선한 이미지를 부여할 것이다.

이처럼 전통과 현대의 조화, 동서양의 조화를 통한 보편적이면서도 차별화된 한국풍 주얼리 디자인의 개발은 최근 불어 닥친 오리엔탈리즘 붐과 함께 국내 주얼리 디자인이 세계적인 디자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르 베제 디 드라공(le Baiser du Dragon)컬렉션	
용	   <p><그림 18> <그림 19> <그림 20></p>
파고다	    <p><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p>
패드락	     <p><그림 25> <그림 26> <그림 27> <그림 28> <그림 29></p>
한자	   <p><그림 30> <그림 31> <그림 32></p>

<표 1> 르 베제 디 드라공(le Baiser du Dragon)컬렉션의 디자인 모티브별 분류

참고문헌

- 1.Thilippe Tretiack,
Cartier, T&H, 1997
- 2.Ettore Sottsass, Cartier Design viewed by
Ettore Sottsass, SKIRA, 2002
- 3.The World of French Jewelry Art-The Art of
Cartier, Tokyo Metropolitan Teren Art
Museum, Nihon Keizai Shimbun, 1995
- 4.Guillemo de Osma, Fortuny:the Life & Work
of Mariano Fortuny, NY, Rizzoli, 1994
- 5.권영필, 실크로드 미술, 열화당, 1997
- 6.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 7.채금석,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1995
- 8.전진농, 오리엔탈리즘의 두얼굴 : 세속적 오리엔탈리
즘과 구도적 오리엔탈리즘, 동서비교문학저널, 1999
- 9.Clare Phillips, 김숙 옮김, Jewelry (장신구 역
사)
- 10.이영재, 오리엔탈리즘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
여자대학 석사학위논문, 1992
- 11.간문자, 1960년대 저항패션이 민속풍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30, 1996
- 12.박은주,은영자,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
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복식43, 1999
- 13.임영자,김선영, 현대패션에 표현된 New
Orientalism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stume vol.50, 2000
- 14.<http://www.cartier.co.kr/>

